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5호 [루게 제24343호] 주제 102(2013)년 10월 22일 (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올해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로 빛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되고있다. 단숨에 기상과 혁명적열정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 도처에서 창조와 건설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오다. 당창건 68돐을 계기로 미림속마구락부나 문수물놀이장, 류경구강병원, 육유야동병원을 비롯한 대중봉사시설들이 일떠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투적사기를 더욱 충천하다.

우리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행전의 불길로, 거세찬 실천의 불길로 더 활활 지펴올리며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올해를 뜻뜻이 총화할수 있게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과제를 매일 어김없이 집행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 특기할 혁명적경사가 겹친 올해를 사회주의건설의 전향적전투를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빛내이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로 시작된 올해의 총진군은 불멸의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여져있다. 우리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축의 최고성지로서 승업하게 꾸려 수행영생위업실현의 새 경지를 펼쳐오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기높이 당, 국가, 혁명무력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이룩하였다. 선군의 위력,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온갖 적대세력들의 가혹되는 반공공작들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와 제도를 영예롭게 수호하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에 타오른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전배로 분출시키고 강성국가건설전진을 일대 양양으로 끌어올린 경이적인 사변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마식령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며 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전승 60돐과 공화국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함으로써 위대한 선군정권을 높이 모신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기상과 백두산대국의 위업을 만천하에 과시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과 공업개발을 집중하여 농업생산과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여왔다. 특히 대추단군에서 메넨에 보기 드문 감자작황이 마르치고 고산과수농장 능력화장공사와 세포동관건설을 비롯하여 과수와 축산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이 더욱 높아지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추진되였다. 교육, 과학, 보건,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분야에서 우리 사회 최첨단물과성과들,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펼치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어 천만군민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군민협동작전에도 도, 시, 군을 특색있게 꾸리고 온 나라를 푸른 잔디로 뒤덮게 하기 위한 전군총돌격운동이 벌어져 나라의 변모가 더욱 일신되였다.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과, 혁명적정신을 비롯한 기념비적작품들이 단숨에 일떠서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고있다.

올해 우리 조국땅우에서 일어난 거창한 사변들과 변혁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웅대한 구상과 전력적인 령도의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대의 첫 아침에 온 나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역사적인 신년사를 보내시어 올해 총진군의 포성을 울리시고 투쟁과 전진의 열기를 환하게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코비서대회와 전국경제동맹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을 의의있게 조직진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고 선군의 산악 오성산과 서해의 최대열전지역인 장제도, 무도를 비롯한 최전연소초들을 위임 없이 찾으신으로써 당의 강화발전과 군력강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호소문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는 민족근대의 평화번영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끊임없이 현지지도강령을 걸으시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장터기념관을 비롯한 전승의 기념비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정신을 끝없이 빛내이시고 온 나라에 1950년대의 조국수호 정신이 차넘치게 하시었다. 올해에 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온 나라에 과학, 중시, 체육을 비롯한 영웅이 세계에 일어나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고도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은 영원히 강대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리라는것이 올해전투에서 다시금 뚜렷이 확증되였다.

승리하여 더 큰 승리로, 비약하여 더 높은 비약으로 계속 전진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기적이요

본배이다. 이제 연말까지의 두달 남짓한 기간이 남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신심드높이 장엄한 전군을 개시한 우리 인민이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울리며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는가를 세계가 지켜보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격들을 의의있게 조직진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고 선군의 산악 오성산과 서해의 최대열전지역인 장제도, 무도를 비롯한 최전연소초들을 위임 없이 찾으신으로써 당의 강화발전과 군력강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호소문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는 민족근대의 평화번영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끊임없이 현지지도강령을 걸으시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장터기념관을 비롯한 전승의 기념비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정신을 끝없이 빛내이시고 온 나라에 1950년대의 조국수호 정신이 차넘치게 하시었다. 올해에 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온 나라에 과학, 중시, 체육을 비롯한 영웅이 세계에 일어나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고도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은 영원히 강대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리라는것이 올해전투에서 다시금 뚜렷이 확증되였다.

승리하여 더 큰 승리로, 비약하여 더 높은 비약으로 계속 전진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기적이요

본배이다. 이제 연말까지의 두달 남짓한 기간이 남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신심드높이 장엄한 전군을 개시한 우리 인민이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울리며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는가를 세계가 지켜보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격들을 의의있게 조직진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고 선군의 산악 오성산과 서해의 최대열전지역인 장제도, 무도를 비롯한 최전연소초들을 위임 없이 찾으신으로써 당의 강화발전과 군력강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호소문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는 민족근대의 평화번영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끊임없이 현지지도강령을 걸으시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장터기념관을 비롯한 전승의 기념비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정신을 끝없이 빛내이시고 온 나라에 1950년대의 조국수호 정신이 차넘치게 하시었다. 올해에 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온 나라에 과학, 중시, 체육을 비롯한 영웅이 세계에 일어나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고도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은 영원히 강대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리라는것이 올해전투에서 다시금 뚜렷이 확증되였다.

승리하여 더 큰 승리로, 비약하여 더 높은 비약으로 계속 전진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기적이요

본배이다. 이제 연말까지의 두달 남짓한 기간이 남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신심드높이 장엄한 전군을 개시한 우리 인민이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울리며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는가를 세계가 지켜보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격들을 의의있게 조직진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고 선군의 산악 오성산과 서해의 최대열전지역인 장제도, 무도를 비롯한 최전연소초들을 위임 없이 찾으신으로써 당의 강화발전과 군력강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호소문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는 민족근대의 평화번영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끊임없이 현지지도강령을 걸으시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장터기념관을 비롯한 전승의 기념비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정신을 끝없이 빛내이시고 온 나라에 1950년대의 조국수호 정신이 차넘치게 하시었다. 올해에 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온 나라에 과학, 중시, 체육을 비롯한 영웅이 세계에 일어나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고도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은 영원히 강대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리라는것이 올해전투에서 다시금 뚜렷이 확증되였다.

승리하여 더 큰 승리로, 비약하여 더 높은 비약으로 계속 전진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기적이요

본배이다. 이제 연말까지의 두달 남짓한 기간이 남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신심드높이 장엄한 전군을 개시한 우리 인민이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울리며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는가를 세계가 지켜보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격들을 의의있게 조직진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고 선군의 산악 오성산과 서해의 최대열전지역인 장제도, 무도를 비롯한 최전연소초들을 위임 없이 찾으신으로써 당의 강화발전과 군력강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호소문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는 민족근대의 평화번영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끊임없이 현지지도강령을 걸으시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장터기념관을 비롯한 전승의 기념비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정신을 끝없이 빛내이시고 온 나라에 1950년대의 조국수호 정신이 차넘치게 하시었다. 올해에 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온 나라에 과학, 중시, 체육을 비롯한 영웅이 세계에 일어나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고도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은 영원히 강대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리라는것이 올해전투에서 다시금 뚜렷이 확증되였다.

승리하여 더 큰 승리로, 비약하여 더 높은 비약으로 계속 전진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기적이요

본배이다. 이제 연말까지의 두달 남짓한 기간이 남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신심드높이 장엄한 전군을 개시한 우리 인민이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울리며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는가를 세계가 지켜보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격들을 의의있게 조직진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고 선군의 산악 오성산과 서해의 최대열전지역인 장제도, 무도를 비롯한 최전연소초들을 위임 없이 찾으신으로써 당의 강화발전과 군력강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호소문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는 민족근대의 평화번영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끊임없이 현지지도강령을 걸으시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장터기념관을 비롯한 전승의 기념비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정신을 끝없이 빛내이시고 온 나라에 1950년대의 조국수호 정신이 차넘치게 하시었다. 올해에 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온 나라에 과학, 중시, 체육을 비롯한 영웅이 세계에 일어나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고도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은 영원히 강대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리라는것이 올해전투에서 다시금 뚜렷이 확증되였다.

승리하여 더 큰 승리로, 비약하여 더 높은 비약으로 계속 전진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기적이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일본신사회당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일본신사회당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어온 선물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일본신사회당대표단장인

도미야마 에이코 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를 스페리에조선선전협회와 주제사상연구소가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일 스텝홀룸에서 진행되였다. 발행식에는 스페리에의 공산당, 스페리에조선선전협회, 주제사상연구소 조진선과 중공이 참가하였다. 스페리에조선선전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폰드그렌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2년

4월 27일에 발표하신 로작 《사회주의건설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국토관리사업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의 조건을 아름답게 변모시키는데서 나서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전망적인 과업이 밝혀져있다. 스페리에조선선전협회와 주제사상연구소는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맞으며 이 로작을 출판한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로야이 빠뜨리오스신문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본사기자**

제2의 히천정신창조의 불길 세차게 라오르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히천정신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라오르다. 건설현장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와 발전기설, 취수구도류박과 수문기동을 비롯한 구조물들의 건설이 본래있게 다그쳐졌으며 최근 한반반동안에 굴착과 성토공사는 각각 10만 7 000여㎡, 6만 8 000여㎡, 콘크리트치기공사는 수만㎡나 수행되였다. 특히 10월에 들어와 공사속도는 더욱 높아짐으로써 보름동안에만도 기본공사과제인 구조물들의 콘크리트치기공사는 실적이 제일 높았던 전날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4 배이상이 상성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현재 발전소건설의 돌과구인반한 올해공사목표를 기어이 정점의 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져나가고있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들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현장지휘부일꾼들은 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일으키는데 큰 힘을 넣고 합리적

의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도 록 하고있다.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건설장마다에서 올해의 마지막 본격적인 공사건설에 최의 콘크리트치기설비를 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가고있다. 이미 최후 9호발전소수원의 언제 콘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다그쳐온 평양시려단에서 지난 9월초부터 현재까지의 정점기간인 무덤이부분의 콘크리트치기를 진행하여 높은 질적수준에서 성과적으로 해제된 기세드높이 수문기동과 취수구바닥콘크리트치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전투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이곳 일꾼들은 6개소에서 수문기동콘크리트치기를 본격적으로 벌려도록 조직 사업을 짜고들면서 힘있게 화산적건설사업과 인신장치의 모범으로 대승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고있다. 각 대대 돌격대원들은 수문기동이 높아지는데 맞게 합리적인 방법형성 방법을 받아들여서 취수구바닥콘크리트치기도 동시에 힘있게 일고있다. 하여 러단에서는 9월에 수천㎡의 콘크리트치기를 하였으며 10월에 들어와 보름동안에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하여 그 실적을 2.6 배나 장성시켰다. 최후 8호와 11호, 10호발전소 건설을 맡은 평안남도려단과 함경남

도려단, 철도성려단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전담에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방수로유역과 발전기실부속, 수문기동을 비롯한 구조물들의 건설을 마다에서 올해의 마지막 본격적인 공사건설에 최의 콘크리트치기설비를 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가고있다. 이미 최후 9호발전소수원의 언제 콘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다그쳐온 평양시려단에서 지난 9월초부터 현재까지의 정점기간인 무덤이부분의 콘크리트치기를 진행하여 높은 질적수준에서 성과적으로 해제된 기세드높이 수문기동과 취수구바닥콘크리트치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전투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이곳 일꾼들은 6개소에서 수문기동콘크리트치기를 본격적으로 벌려도록 조직 사업을 짜고들면서 힘있게 화산적건설사업과 인신장치의 모범으로 대승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고있다. 각 대대 돌격대원들은 수문기동이 높아지는데 맞게 합리적인 방법형성 방법을 받아들여서 취수구바닥콘크리트치기도 동시에 힘있게 일고있다. 하여 러단에서는 9월에 수천㎡의 콘크리트치기를 하였으며 10월에 들어와 보름동안에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하여 그 실적을 2.6 배나 장성시켰다. 최후 8호와 11호, 10호발전소 건설을 맡은 평안남도려단과 함경남

도려단, 철도성려단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전담에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방수로유역과 발전기실부속, 수문기동을 비롯한 구조물들의 건설을 마다에서 올해의 마지막 본격적인 공사건설에 최의 콘크리트치기설비를 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가고있다. 이미 최후 9호발전소수원의 언제 콘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다그쳐온 평양시려단에서 지난 9월초부터 현재까지의 정점기간인 무덤이부분의 콘크리트치기를 진행하여 높은 질적수준에서 성과적으로 해제된 기세드높이 수문기동과 취수구바닥콘크리트치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전투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이곳 일꾼들은 6개소에서 수문기동콘크리트치기를 본격적으로 벌려도록 조직 사업을 짜고들면서 힘있게 화산적건설사업과 인신장치의 모범으로 대승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고있다. 각 대대 돌격대원들은 수문기동이 높아지는데 맞게 합리적인 방법형성 방법을 받아들여서 취수구바닥콘크리트치기도 동시에 힘있게 일고있다. 하여 러단에서는 9월에 수천㎡의 콘크리트치기를 하였으며 10월에 들어와 보름동안에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하여 그 실적을 2.6 배나 장성시켰다. 최후 8호와 11호, 10호발전소 건설을 맡은 평안남도려단과 함경남

염분진호otel건설 적극 추진

염분진호otel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건설에 동원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방대한 물조공사를 100여일동안에 와타닥 해제된 그 기세로 외부벽체막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염분진호otel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건설에 동원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방대한 물조공사를 100여일동안에 와타닥 해제된 그 기세로 외부벽체막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염분진호otel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건설에 동원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방대한 물조공사를 100여일동안에 와타닥 해제된 그 기세로 외부벽체막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염분진호otel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건설에 동원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방대한 물조공사를 100여일동안에 와타닥 해제된 그 기세로 외부벽체막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염분진호otel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건설에 동원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방대한 물조공사를 100여일동안에 와타닥 해제된 그 기세로 외부벽체막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염분진호otel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건설에 동원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방대한 물조공사를 100여일동안에 와타닥 해제된 그 기세로 외부벽체막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염분진호otel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건설에 동원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방대한 물조공사를 100여일동안에 와타닥 해제된 그 기세로 외부벽체막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편지들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 사 리련 편집 공장에서 - **본사기자 신 총력 직음**

장시

행복의 노을이 불타다

한승희

본매기에 해보자고 합니다

노을이 피어오른다 이 나라 동해기슭 내 내서자란 어머니대지에 끝없이 출렁이는 대자연호수 팜포의 푸른 물결위에 노을이 불타다

지난날에는 돈 많은 부자들이나 이 마을속에 어려우나 이제는 인민이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인민이...

한알 또 한알 소중히 안아보는 이 마을속에 어려우나 친만대적을 한손에 거머쥔 명장의 손으로 바가지를 드시고 매맞지 닭모이를 주시며 가금업의 패일을 그려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찾고찾으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 모습 그 헌신을 못 잊어 비내리던 몇해전 9월의 이른아침 현대화된 우리 공장을 찾으신 장관님 팜포에 남기신 말씀 뜨거워라

오시오 수령님께서 전화의 나날부터 개척하여주신 나라의 가금업을 위해서는 아가 올것이지 없습니까 -장군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은 집안식구가 저마다 타은 고기와 알을 놓고 기뻐하였다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흐뭇하오 우리가 어려운 때이지만 현대적인 가금공장들을 건설하길 얼마나 잘했는가 혁명은 이런 것에서 하는거지...

피어피어 거대한 불길인양 온 누리에 타탄지며 뜨거운 열광을 휘부리는 아, 붉은 노을

드르릉- 천하를 울리는 그 음성 천년세월 잠자던 호수가 깨어나 와와 격랑을 일으키고 어둠을 밀어낸 동녘하늘에선 노을이 불꽃다

바람세찬 불날에도 피약벌 쏟아지는 한여름에도 오시여 신념의 역센 기둥 세워주시며 사양판리와 기업관리... 천가지 만가지를 다 배워주시던 자애로운 그 영상

-정말 수령님 업적이 많은 공장이오 수령님 업적이... 팜포오리공장을 굴지의 오리고기생산기지로 전변시켜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을것입니다

나라의 중대한 일 맡고말건만 인민들에게 먹일 고기문제를 두고 아침식사로 건느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장관님 또다시 먼길 떠나실 때 그이를 바래우며 눈물눈 젖던 우리 마음

정녕 쌓여온 시름이 다 풀리시듯 그이는 환하게 웃으셨건만 인민의 눈가에선 뜨거운것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거니

10월의 못 잊을 그 아침에 피어나 나타나 밤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팜포의 노을아 내 오늘 노래하련다 네 어찌하여 그리도 붉은지 네 어찌하여 그리도 불타는지

누리에 만발하는 태양의 미소 사랑에 불타는 그 노을빛으로 가금업의 새 역사를 펼쳐지는 우리 수령님

시련의 찬바람 눈비를 다 막아주시며 사랑의 추녀를 얹어주신 공장에서 고기와 알이 쏟아질 때면 너무나 기쁘시여 오신 길 또 오시던 인민의 아버지

아, 자신의 한평생을 바쳐 내 나라 가금업의 밑뿌리 만년행복의 역센 토대를 마련해주신 주제가금업의 위대한 창립자 김일성대원수님!

귀에 뜨겁게 들려오누나 생산된 고기와 알을 무조건 인민들에게 팔고두 차떼지게 공금 하라고 바로 이것이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우리 장관님 절절히 하신 그날의 그 말씀

우리 장관님 옷살에 고드름이 맺히도록 눈보라헤쳐 넘으신 령과 령 그 얼마나 험했더나 피약벌에 온몸이 푹 찔도록 해동일 걸으신 구내길 포진길 이 땅위에 얼마였더나

1 철썩 처절씩- 붉은 노을을 비껴담은 팜포의 물결은 기슭을 치고 동화축의 그림인양 아담한 오리사들 열맞춰 줄맞춰 들어앉은 선덕산기슭에선 새들이 깃을 치며 창공놀이 날아오른다

말하라 팜포여 그처럼 근면하고 부지런했건만 생일날조차 고기 한집없는 밥상위에 서서머의 눈물을 뿌려야 했던 이 나라 인민의 그 설움이 어떻게 이 땅에서 영영 물러갔는가

살진 오리들 저를에 달아보시며 집집에 차배질 행복의 무게를 가능해보시며 오리훈제며 오리알가공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더니

정녕 기나긴 세월 인민이 꿈에서 바라는 행복의 아침 노을은 만민의 태양 우리 수령님 품에서 밝아왔나니

그이 이 땅에 펼쳐주신 가금업의 새 령사와 더불어 인민은 인민은 잊지 못하리라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그 업적 팜포의 붉은 노을과 더불어 후손대대 길이길이 노래하리라!

단발아전술의 색이 바래고 혼술이 다 닳도록 수령님 맡기신 인민을 품어안으시고 눈비세찬 세월의 먼길을 헤쳐오신분

새날을 향하여 활짝 열린 창마다에서 오리떼를 부르는 사양공처녀들의 목소리 정겨운 노래처럼 들리며 나는 지금 길는다 노을이 불타는 팜포기슭을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흙 한줌 돌 하나 한줄기 시내물조차 우리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손길을 떠나서는 인민의것이 될수 없었나니

우리 잊을수 있오라 몸소 저택에서 한알두알 오리알을 경주시며 공장에 건본공으로 보내주신 그 사랑을 한발중에도 전화를 거시여 증산목표와 먹이해결방도까지 세워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은정을!

그이 이 땅에 펼쳐주신 가금업의 새 령사와 더불어 인민은 인민은 잊지 못하리라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그 업적 팜포의 붉은 노을과 더불어 후손대대 길이길이 노래하리라!

그이 이 땅에 펼쳐주신 가금업의 새 령사와 더불어 인민은 인민은 잊지 못하리라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그 업적 팜포의 붉은 노을과 더불어 후손대대 길이길이 노래하리라!

그리도 사랑하신 인민에게 하루빨리 만복을 안겨주시려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강행군을 하신 장관님 변모된 두단심의 구내길을 걸으시던 시도 팜포와 더불어 창창할 이 나라 가금업의 미래를 그려보시었거니

어디서 시작되어 그 어디서 끝나는가 아름다운 호수 드넓은 팜포 끝없이 길고만길은 행복의 기슭이여

피바다만리 불바다만리 사선의 고비고비 다 헤쳐넘으시며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 한평생 멀고 험한 길 다 걸으신 우리 수령님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고도 주실수 있는것을 다 주시고도 인민들에게 고기를 더 풍족히 먹이고 싶으시여 이 땅에 세워주신 가금공장은 얼마이고 그 공장들을 찾아 걸으신 길 얼마였더나

해썬은 아침에도 별뜨는 저녁에도 아버지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인가 팜포의 하늘가에 노을이 불타다

2 -총동력 앞으로! 장관님 가리키신 목표를 향하여!

그리도 사랑하신 인민에게 하루빨리 만복을 안겨주시려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강행군을 하신 장관님 변모된 두단심의 구내길을 걸으시던 시도 팜포와 더불어 창창할 이 나라 가금업의 미래를 그려보시었거니

호수가엔 푸른 물이 출렁이고 내 마을엔 추억의 물결이 출렁이 나니 어제날엔 가난과 빈궁의 노래소리 처량하던 호수가 오늘은 로동당세월속에 인민의 기쁨 노를로 피어나는 락원의 이 기슭!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흙 한줌 돌 하나 한줄기 시내물조차 우리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손길을 떠나서는 인민의것이 될수 없었나니

우리 잊을수 있오라 몸소 저택에서 한알두알 오리알을 경주시며 공장에 건본공으로 보내주신 그 사랑을 한발중에도 전화를 거시여 증산목표와 먹이해결방도까지 세워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은정을!

간담도 그리웁속에 불빛 꺼질줄 모르던 오리사의 창문들 평양을 향하여 활짝 열리고 푸른 숲 파일항기 넘치는 구내길에 오리떼는 하얗게 흐르는데...

태공에 전선줄이 끊어져 알개우기장의 온도가 식어갈 때 한장 또 한장 내화벽돌을 달구어 식어가는 기대에 열을 주고 오리사의 찬 온도를 덥혀 장관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갔다

그리도 사랑하신 인민에게 하루빨리 만복을 안겨주시려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강행군을 하신 장관님 변모된 두단심의 구내길을 걸으시던 시도 팜포와 더불어 창창할 이 나라 가금업의 미래를 그려보시었거니

사람도 산천도 못 잊을 그리움에 불타는 이 아침 내 삼가 시상의 노를 저어 이 기슭에 첫 노을피던 그날의 호수가엔 들어서노라

피바다만리 불바다만리 사선의 고비고비 다 헤쳐넘으시며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 한평생 멀고 험한 길 다 걸으신 우리 수령님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고도 주실수 있는것을 다 주시고도 인민들에게 고기를 더 풍족히 먹이고 싶으시여 이 땅에 세워주신 가금공장은 얼마이고 그 공장들을 찾아 걸으신 길 얼마였더나

간담도 그리웁속에 불빛 꺼질줄 모르던 오리사의 창문들 평양을 향하여 활짝 열리고 푸른 숲 파일항기 넘치는 구내길에 오리떼는 하얗게 흐르는데...

한알의 쌀, 한알의 강병이 그처럼 소중한 때 가정의 너적너 못한 쌀독을 서슴없이 털어

그리도 사랑하신 인민에게 하루빨리 만복을 안겨주시려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강행군을 하신 장관님 변모된 두단심의 구내길을 걸으시던 시도 팜포와 더불어 창창할 이 나라 가금업의 미래를 그려보시었거니

샅이냐 죽음이냐 전쟁의 불바다속에 조국과 민족의 생사운명이 판가리 되던 그때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는 축산업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물어보자 사람들이여 우리 수령님처럼 불바다 쏟아지는 전쟁의 나날에도 인민의 방상에 오를 고기국을 생각 하며 한밤을 밝힌 령도자가 있었던가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 창밖에 비부리는 령치안에서도 오리기르기를 펼쳐드시오 한밤을 포박 새우시던분

이런 날 이런 아침이면 더더욱 그리워지는 장관님 그리움에 사무쳐 달려가는 우리 마음속에 어려오는 장관님의 그 미소

한알의 쌀, 한알의 강병이 그처럼 소중한 때 가정의 너적너 못한 쌀독을 서슴없이 털어

그리도 사랑하신 인민에게 하루빨리 만복을 안겨주시려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강행군을 하신 장관님 변모된 두단심의 구내길을 걸으시던 시도 팜포와 더불어 창창할 이 나라 가금업의 미래를 그려보시었거니

산천도 못 잊을 그리움에 불타는 이 아침 내 삼가 시상의 노를 저어 이 기슭에 첫 노을피던 그날의 호수가엔 들어서노라

샅이냐 죽음이냐 전쟁의 불바다속에 조국과 민족의 생사운명이 판가리 되던 그때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는 축산업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 창밖에 비부리는 령치안에서도 오리기르기를 펼쳐드시오 한밤을 포박 새우시던분

이런 날 이런 아침이면 더더욱 그리워지는 장관님 그리움에 사무쳐 달려가는 우리 마음속에 어려오는 장관님의 그 미소

한알의 쌀, 한알의 강병이 그처럼 소중한 때 가정의 너적너 못한 쌀독을 서슴없이 털어

그리도 사랑하신 인민에게 하루빨리 만복을 안겨주시려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강행군을 하신 장관님 변모된 두단심의 구내길을 걸으시던 시도 팜포와 더불어 창창할 이 나라 가금업의 미래를 그려보시었거니

산천도 못 잊을 그리움에 불타는 이 아침 내 삼가 시상의 노를 저어 이 기슭에 첫 노을피던 그날의 호수가엔 들어서노라

샅이냐 죽음이냐 전쟁의 불바다속에 조국과 민족의 생사운명이 판가리 되던 그때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는 축산업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 창밖에 비부리는 령치안에서도 오리기르기를 펼쳐드시오 한밤을 포박 새우시던분

이런 날 이런 아침이면 더더욱 그리워지는 장관님 그리움에 사무쳐 달려가는 우리 마음속에 어려오는 장관님의 그 미소

한알의 쌀, 한알의 강병이 그처럼 소중한 때 가정의 너적너 못한 쌀독을 서슴없이 털어

그리도 사랑하신 인민에게 하루빨리 만복을 안겨주시려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강행군을 하신 장관님 변모된 두단심의 구내길을 걸으시던 시도 팜포와 더불어 창창할 이 나라 가금업의 미래를 그려보시었거니

산천도 못 잊을 그리움에 불타는 이 아침 내 삼가 시상의 노를 저어 이 기슭에 첫 노을피던 그날의 호수가엔 들어서노라

샅이냐 죽음이냐 전쟁의 불바다속에 조국과 민족의 생사운명이 판가리 되던 그때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는 축산업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 창밖에 비부리는 령치안에서도 오리기르기를 펼쳐드시오 한밤을 포박 새우시던분

이런 날 이런 아침이면 더더욱 그리워지는 장관님 그리움에 사무쳐 달려가는 우리 마음속에 어려오는 장관님의 그 미소

한알의 쌀, 한알의 강병이 그처럼 소중한 때 가정의 너적너 못한 쌀독을 서슴없이 털어

그리도 사랑하신 인민에게 하루빨리 만복을 안겨주시려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강행군을 하신 장관님 변모된 두단심의 구내길을 걸으시던 시도 팜포와 더불어 창창할 이 나라 가금업의 미래를 그려보시었거니

산천도 못 잊을 그리움에 불타는 이 아침 내 삼가 시상의 노를 저어 이 기슭에 첫 노을피던 그날의 호수가엔 들어서노라

샅이냐 죽음이냐 전쟁의 불바다속에 조국과 민족의 생사운명이 판가리 되던 그때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는 축산업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 창밖에 비부리는 령치안에서도 오리기르기를 펼쳐드시오 한밤을 포박 새우시던분

이런 날 이런 아침이면 더더욱 그리워지는 장관님 그리움에 사무쳐 달려가는 우리 마음속에 어려오는 장관님의 그 미소

한알의 쌀, 한알의 강병이 그처럼 소중한 때 가정의 너적너 못한 쌀독을 서슴없이 털어

그리도 사랑하신 인민에게 하루빨리 만복을 안겨주시려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강행군을 하신 장관님 변모된 두단심의 구내길을 걸으시던 시도 팜포와 더불어 창창할 이 나라 가금업의 미래를 그려보시었거니

산천도 못 잊을 그리움에 불타는 이 아침 내 삼가 시상의 노를 저어 이 기슭에 첫 노을피던 그날의 호수가엔 들어서노라

샅이냐 죽음이냐 전쟁의 불바다속에 조국과 민족의 생사운명이 판가리 되던 그때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는 축산업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 창밖에 비부리는 령치안에서도 오리기르기를 펼쳐드시오 한밤을 포박 새우시던분

이런 날 이런 아침이면 더더욱 그리워지는 장관님 그리움에 사무쳐 달려가는 우리 마음속에 어려오는 장관님의 그 미소

한알의 쌀, 한알의 강병이 그처럼 소중한 때 가정의 너적너 못한 쌀독을 서슴없이 털어

그리도 사랑하신 인민에게 하루빨리 만복을 안겨주시려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강행군을 하신 장관님 변모된 두단심의 구내길을 걸으시던 시도 팜포와 더불어 창창할 이 나라 가금업의 미래를 그려보시었거니

산천도 못 잊을 그리움에 불타는 이 아침 내 삼가 시상의 노를 저어 이 기슭에 첫 노을피던 그날의 호수가엔 들어서노라

샅이냐 죽음이냐 전쟁의 불바다속에 조국과 민족의 생사운명이 판가리 되던 그때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는 축산업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 창밖에 비부리는 령치안에서도 오리기르기를 펼쳐드시오 한밤을 포박 새우시던분

이런 날 이런 아침이면 더더욱 그리워지는 장관님 그리움에 사무쳐 달려가는 우리 마음속에 어려오는 장관님의 그 미소

한알의 쌀, 한알의 강병이 그처럼 소중한 때 가정의 너적너 못한 쌀독을 서슴없이 털어

그리도 사랑하신 인민에게 하루빨리 만복을 안겨주시려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강행군을 하신 장관님 변모된 두단심의 구내길을 걸으시던 시도 팜포와 더불어 창창할 이 나라 가금업의 미래를 그려보시었거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가 일본신사회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는 21일 도미야마 에이코 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장으로 하는 일본신사회당 대표단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와 박근광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일꾼들이

여기에는 박근광부부장을 비롯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당과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셨다. 그는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당사자의 호상 이해와 우의를 두터이하는 계기로 된다 고 말했다. 일본신사회당지도부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과 나라

여기에는 박근광부부장을 비롯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당과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셨다. 그는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당사자의 호상 이해와 우의를 두터이하는 계기로 된다 고 말했다. 일본신사회당지도부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과 나라

인도네시아외무상일행 도착

라덴 모하마드 마르페 물리어나 나팔레가와 인도네시아의 무상과 일행이 2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박길연외무성 부상과 나스리 구스파만 주조 인도네시아 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프랑스실업계대표단 도착

알방 용 프랑스 《빅트르 생텍쥐페리》 중극대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프랑스 실업계대표단이 2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가설계지도국 국장을 단장으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미중하였다.

중국방문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 출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박길연외무성 부상과 나스리 구스파만 주조 인도네시아 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박길연외무성 부상과 나스리 구스파만 주조 인도네시아 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박길연외무성 부상과 나스리 구스파만 주조 인도네시아 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박길연외무성 부상과 나스리 구스파만 주조 인도네시아 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중국을 방문 하였던 설계일꾼대표단 귀국

중국을 방문하였던 설계일꾼대표단이 2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가설계지도국 국장을 단장으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미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